

# 포스텍 신소재공학과, 분말야금학회 우수포스터상

기사전송 2016/04/06, 20:51:07

포스텍(총장 김도연)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백승미(사진·지도교수 김형섭)씨 외 5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연구팀이 신한다이아몬드 우수포스터(발표논문)상을 수상했다.

6일 포스텍에 따르면, 한국분말야금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, 신한다이아몬드공업(주)가 후원한 이번 우수 논문대회에서 연구팀은 '고압 비틀림 공정으로 제작한 순 타이타늄 동맥류 클립의 기계적 특성 평가' 논문을 발표했다. 이번 연구는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김형섭 교수와 한세광 교수의 지도 아래 주저자인 백 씨와 엄호용씨(이상 지도교수 김형섭), 정호상씨(지도교수 한세광), 경북대 박재찬씨가 공동으로 수행했다.

이 논문은 체내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는 동맥류 클립을 순 타이타늄을 이용해 고압 비틀림 공정으로 제작했을 때 생체 재료로서의 적합성과 기계적 물성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해 관심을 끌었다.

포함=이시형기자 lsh@idaegu.co.kr

취소